

한약회 慶南支部 학술분과위원회를 찾아

- 編輯室 -

「大韓韓藥」 편집진이 학술 분야에서 활동이 돋보이는 대한한약협회 경남지부 학술 분과 위원회를 찾아 보았다 道 지부 사무실은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성원 오피스텔 734호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한종진 사무국장이 안내하여 주었다

경남 지부의 학술분과위원회는 趙春一 道 支部長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崔振百(마산시 최한약방)위원장이 한의약 학술 제고에 정력을 쏟고 있었다

뒤떨어진 한약 학술 발전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상호연구, 정보교환 할 수 있는 광장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러하기 위하여서는 학술지의 간행이 절실하다고 생각한 집행부에서는 이의 실현을 위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여건 조성에 주력한 결과 1990년에 「慶南韓藥」을 태어나게 하였던 것이다

경남 지부는 1970년에 처음으로 지부 산하에 학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그후 20년 가까운 시일이 지나는 동안 유명무실하였던 것을 1989년에 이르러 당시 학술분과위원장 이던 李相哲회원이 5代 지부장으로 취임하면서 지부의 발전차원에서나 회원들의 학술정보 교환면에서도 회지발간이 긴요하다고 보고 1990년에 사비를 쾌척하여 창간호를 발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91년에 奇宇鏐 회원이 지부장에 취임하면서 金章河 학술분과 위원장과 티임위어크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학술위 활동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니 학술 위원을 18명으로 증원하여 조직을 강화하고 원고모집에 적극 호응한 것이 원동력이 되었다 金위원장은 학술 사업뿐 아니라 일반 육영사업에도 뜻을 두었던 분으로 淸州市에 명문 고등학교를 설립하여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고 이어 수백 억대로 평가되는 학원을 국가에 헌납하기도 한 분이다

金위원장이 3號까지 간행하고, 임기를 마친 뒤인 1993년에 申榮瑀회원이 道 支部長으로 선출된 趙春一회원과 티임위어크를 이루어 4, 5, 6號를 계속 간행하는데 힘을 쏟으니 「慶南韓藥」의 기반은 확고한 자리에 오른 것이다

申위원장은 남다른 식견과 학구 활동으로 한약사업의 권익을 위해서는 11개 한의약서의 정리가 절실하다고 보고 수년에 걸친 작업 끝에 한의약인들의 지침서가 될 11개 한의약서에 수재된 처방 모음인 「湯劑方 加減活套叢書」를 編輯著作까지 하여 우리 한약업사들의 龜鑑이 되고 있는 분이다 특히 이 叢書는 한약업사들의 기존 처방의 加減이 설정법에 위반이라는

등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활용하여 우리 권익보호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아쉬운 것은 申위원장은 과중한 업무에 무리하여 건강을 해친 결과로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직을 물러나게 되어 모두 안타까워 하였다고 하였다

현 학술 분과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崔振百위원장이 申위원장의 잔여 임기와 다시 업무를 맡아서 6, 7, 8號를 계속 발간하였고 지금 다시 9號를 준비하고 있었다

崔위원장의 성실한 활동은 조춘일지부장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이 우뚝한 지부 단위 학술지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8년동안 결간없이 출간되었다는 것을 큰 보람으로 삼겠다는 趙지부장과 崔위원장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慶南韓藥學會창립 발기 총회를 지난해 12월에 가진데 이어 올 2월 27일에 정식 學會를 設立하는데 성공하였다 趙지부장은 “전국에서 유일한 한약전문인의 연구모임인 학회를 설립까지 하였으니 전 회원들은 한단계 높은 차원에서 공부하여 이 보람을 이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있다

경남 지부는 이외에도 會報까지 발간하여 중앙회에서 일어나는 소식, 지부자체의 뉴스들을 전 회원들에게 알려줌으로서 회원들의 친목도 도모하는 일석이조하는사업도 하고 있었다

한때 회세는 200회원이 넘었으나 울산이 광역시로 분리되어 현재의 회원수는 177명이지만 단합된 힘은 더욱 강화되어 있다고 하였다

경남한약회의 학술활동상황을 보면서 지부 단위 초유의 학회 설립에 감명을 받았으며 전국의 모든 支部도 이를 모델로 하는 운동이 확산되어 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박수를 보냈다

경남한약회 학술 위원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하고 학술위원들을 격려하는 뜻에서 이 자리에 위원들을 소개하며 줄인다

- 위원장 최진백
- 고 문 이상철, 김장하, 신영우
- 위 원 김세환, 김병우, 이상식, 정홍주, 박태이, 김 장, 예종우, 김현우, 이석희, 박동석, 예해운, 이기수

1998 3

(청 암)